

건강 칼럼

낮아지는 여성질환 발병 연령

빠른 초경, 호르몬 불균형을 유발하는 식습관과 환경 때문에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등 여성질환 발병율이 점점 높아지는 동시에 발병의 연령대가 낮아지는 추세다.

특히 자궁근종과 자궁선근증의 대표적인 증상인 생리통과 부정출혈 등으로 인해 산부인과를 내원하는 젊은 여성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자궁근종은 70%의 여성의 3~4명 중 한명 꼴로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만큼 아주 흔하지만 증상도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6cm 이상의 큰 혹이 자궁에 있어도 증상 없이 우연한 검진을 통해 발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증상을 보이는 환자 중에서는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않을 만큼 비정상 출혈을 일으켜 심한 빈혈, 울렁증, 가슴두근거림과 같은 합병증상도 함께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종일

포미즈여성병원 원장

지 않다. 미혼 여성에게 산부인과는 멀게만 느껴지는 곳이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라면 미혼일 수록 더 친숙해져야 하는 곳이기도 하다.

특히 임신을 희망하는 여성이라면 성 문화는 날로 개방화 돼 있지만 여성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미혼여성에게 자궁에 혹이 있다는 진단은 아마도 청천벽력 같은 일일

것이다. 이어 건강관리에 소홀했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큰 슬픔과 좌절에 빠지는 여성들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젊은 여성들에게 자궁근종과 같은 자궁의 혹은 흔한 질병일 수 있다. 관련은 치료의 방법이다.

과거에는 자궁에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숨겨야만 할 것 같은 편견과 함께 자궁근종의 치료를 안일하게 방치하는 미혼의 여성들이 많

다. 그도 그럴 것이 자궁근종을 치료하는 방법 중 자궁을 적출하는 방법 외 자궁을 보존할 수 있는 근중절제 복강경수술(자궁에 근종만 도려내는 수술)조차도 향후 임신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학 기술의 발달로 비수술적 방법을 통한 치료법이 등장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이푸 치료로 체내로 통과하는 일체의 수술기구 없이 체외에서 쏘아지는 초음파 열로 자궁근종과 같은 혹이나 자궁선근증을 절제할 수 있는 비수술적 치료방법이다.

소중한 자신의 몸은 바로 자기 자신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막연한 두려움과 잘못된 알려진 정보로 건강을 해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독자제언

관공서 주취소란 더 강력한 규제조치 필요

술... 술... 술...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문화를 뺄 수 없음을 대한민국 성인이려면 누구나 알고 있다.

만나서 반갑다고 술을 마시고 헤어지니 어렵다고 술을 마시는 대한민국 음주문화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어두운 부분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술을 마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위는 절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 행위와 치안 수요를 증가시키는 행위의 당사자들은 대부분이 주취상태이다.

특히나 물지각한 소수의 사람들은 경찰서나 관공서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소란을 피우기도 한다.

술에 관대 할 거란 잘못된 생각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를 찾아와 소란과 난동을 피는 사람들에게 그 또한 범죄 행위를 일러야 한다.

경찰은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 개정으로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관공서 주취 소란죄'를 적용하고 있다.

'관공서 주취 소란죄'는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또 일정한 요건 구비 때 현행 법인으로 체포하는 등 경찰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물지각한 주취자들은 지구대·파출소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고함·욕설을 하는 소란·난동 행위가 반복되는 처지다.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는 주취자들 탓에 정작 필요한 경찰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여 대국민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 피해가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누구든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범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대한민국답게 선진 사회질서의식이 자리 잡힐 때까지 보다 더 강력한 규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극소수의 범죄자들도 인해 선량한 시민의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

김현남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순경

독자제언

소방에서 5분은 '황금의 시간'

소방관서에 전화를 걸면 '소방출동'라는 생명로 라는 안내멘트가 흘러 나온다.

소방에서 5분은 황금의 시간(golden time)이라 부른다.

화재는 발화 후 5분이 경과하면 연소 확산 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5분이 지나면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유내진입이 곤란해진다.

또한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손상이 시작된다.

기적같이 살아나게 되도 후유증이 남아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진다.

행명의 생명이라도 더 살리고, 조금의 재산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는 이 5분이라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5분 이내에 도착하여 화재진압을 시도해야 하고, 5분 이내에 도착하여 인명구조를 시작해야 하며 5분 이내에 도착하여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소방관들은 1초라도 빨리 현장에 접근하기 위해 출동중 소방차량 안에서

화재진압복을 갈아입지만 일부 일초를 다룬는 화재 진압 활동에 있어서 무질서하게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 활동에 애를 먹게 된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2011년부터 소방공무원들에게 주·정차 단속권한이 주어지게 되었다.

이로 인해 소방공무원들은 지속적인 시민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소방통로상 또는 소화전 주변 등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 경고장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화재피해를 당한 사람 혹은 구급수혜를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한다. 우리 집에 불이 나 화재피해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내 가족이 이파서 구급차가 필요할 수도 있다. 소방통로를 확보하는 것은 내 생명과 내 재산을 보호하는 길이

다. 나만 편하면 된다는 이기적인 행동들은 결국 나 자신, 내 가족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자.

조정훈 부안소방서 방호구조과

사설

농생명산업의 발전 방향 뚜렷해야

농생명 산업의 발전 방향이 뚜렷해야겠다. 전북도는 새만금 내부 개발 소식을 전하면서 농생명 용지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강조해 말하고 싶은 게 있다. 농생명 산업의 발전 목표가 계속 뚜렷해야겠다. 농생명 산업의 발전도모는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다. 도민들은 전북도가 농생명 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한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전북도는 스스로 말했던 바 농생명 산업 허브화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전북도는 그동안 농가를 위하여 이런저런 구상을 발표하면서 농민과 함께 하고 있음을 알렸다. 전북도가 밝힌 삼락농정 구상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전북도가 말하는 삼락농정이란 '보람' 찾은 농민 '제 값 받는 농업' '사랑' 찾는 농촌'을 위한 것이다. 전북도는 처음에 밝히기를 150개 사업을 선정하고 55개 신규 사업도 발굴해 모두 532억 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었다.

전북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삼락농정은 도정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이다. 그런데 도내 농가들의 현실을 보면 삼락농정의 실현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역대 정부는 지난 수년간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했다. 중국과도 협상이 타결돼 정식 서명을 한지도 이제 오래 됐다. 그 체결로 해서 거대 시장이 열렸다고 다수는 반색했지만 그제 농가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은 결코 아니다. FTA는 농가들에게 미어느스로 작용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농사에 보람을 찾으려는 이가 오늘날 드문 것이다.

전북도의 '삼락농정' 비전은 매우 중요하다. 농생명 산업의 허브화도 그렇다. 전북도도 잘 알고 있는 그대로 농생명 산업의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이같은 이야기는 그걸 절실하게 인식할 때마다 나왔다. 농생명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그 연장선에서 나왔다. 전북도는 농생명 산업의 발전 목표를 더욱 뚜렷하게 해야 한다.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보통 이상의 힘을 내야 한다는 당부이다.

군산항 발전에 계속 매진해야

군산항 발전에 계속 매진해야겠다. 광양항이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도민들은 지자체에 지역발전을 위해서 일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것은 군산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도민들은 지역이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희망이 현실에서 쉬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답답하다.

도민들의 바람은 한결같다. 지역이 보다 발전해 웰빙 고장이 됐으면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형 프로젝트가 새만금사업 말고는 없다는 게 문제이다. 전북도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한다. 지역이 발전된 모습을 보이려면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비상한 각오는 도지사만이 아니라 각 시 군 지자체의 수장들도 함께 가져야 한다. 다른 지역의 발전 보폭에 비하여 이쪽의 발전 보폭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 번 지적해 왔거니와 보통 실적의 성과에 만족해 안주해선 안 된다.

현재 지역발전을 위해 매진하는 군산시는 군산항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해야 한다. 현재 새만금 지구 중에서 군산은 산업지역으로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현재 군산시는 군산항의 현주소가 어디쯤에 있는지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군산항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꾸준히 발굴해야 한다.군산의 발전은 전북 전체의 발전이기도 하다. 전북도는 군산시와 함께 군산항 발전 구상을 적극 펼쳐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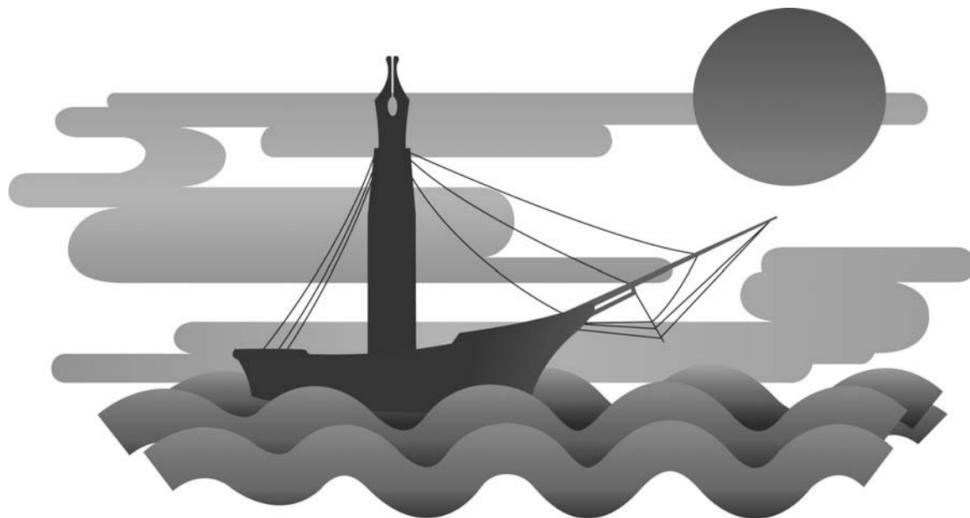
산은 지금쯤 대도시가 돼 있어야 맞다.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초라하고 고밖에 다른 할 말이 없다. 시로 승격된 역사가 오래임에도 다른 항구 도시보다 낙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군산항의 물동량이 오래도록 제자리라니 하는 말이다. 전북의 유일한 항구인데 관문으로서 그 역할이 증대되지 않고 있음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최근 뉴스를 보니 군산항의 일거리를 광양항이 대신할지도 모른다는데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그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군산항의 미래는 암담하다.

군산시는 군산항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해야 한다. 현재 새만금 지구 중에서 군산은 산업지역으로 그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 현재 군산시는 군산항의 현주소가 어디쯤에 있는지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군산항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프로젝트를 꾸준히 발굴해야 한다.군산의 발전은 전북 전체의 발전이기도 하다. 전북도는 군산시와 함께 군산항 발전 구상을 적극 펼쳐야 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 288-9700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